

사회

해외 다녀온 학생들 1주일 간 등교 금지

교직원들도... 개학 교묘 신종플루 차단 비상



즐거운 도자기 체험 17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의 광주전통공예학교에서 열린 '도자기 체험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 20여명이 도자기를 빚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장애 학생 2천여명

“갈 곳 없는 방학이 싫어요”

市·교육청 무관심 지원 프로그램 없어

대전·울산 등은 계절학교 운영 큰 호응

지적장애 2급 아들(14·중2)을 둔 주부 A(45·광주 광산구)씨는 올 여름방학이 너무 힘들다. A씨는 최근 간경화 판정을 받고 입원중인 남편 병간호에 매달려 온 탓에 여름방학 동안 집에서 생활하게 된 아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들이 비장애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운영중인 계절학교 등에 보내면 되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의 아들을 받아들여 교육기관은 사실상 없다. A씨는 다행히 이곳 저곳에 도움을 요청한 끝에 민간단체의 무료 계절학교에 아들을 맡길 수 있게 됐다. A씨는 “하루에도 몇번씩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운이 좋아 민간단체에 아들을 맡길 수 있게 됐지만, 올 겨울방학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울먹였다.

있는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만, 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방학 학습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마저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장애인부모 연대 등에 따르면 광주의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은 2천여명(초 572명, 중 302명, 고 216명, 특수학교 916명)에 이른다. 이들이 방학중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 2곳 등 9곳 뿐이며, 수용 인원은 단 200여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장애인부모연대의 경우 12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복지관은 월 18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 사설기관이 있긴 하지만 월 이용료가 50여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저소득층 장애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광주시교육청의 장애학생 방학 지원 프로그램도 형식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7개 특수학교에 장애인 방학 중 계절학교를 운영중이지만, 수용 인원은 겨우 50여명 정도다. 결국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방학 기간내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 민간단체가 직접 나서 오는 28일까지 광산구 우산동 사무실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계절학교를 운영중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알차다. 운동과 레크리에이션, 음악·미술 치료 등을 비롯한 점심식사 준비·설거지 훈련, 버스타기 등 생활과 밀접한 실용교육을 진행한다. 하지만, 사무실이 너무 좁아 14명의 장애학생만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반면 대전과 울산 등 타 지역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방학중 계절학교를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산은 지역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박찬동 실장은 “광주시교육청이나 자치단체 모두 장애학생의 방학 중 교육복지에 대해선 너무 무관심하다”면서 “장애학생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인 만큼 겨울방학부터라도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공포가 확산되면서 2학기 개학을 앞둔 광주·전남지역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시·도 교육청은 우선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신종플루 위험국가’를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1주일 간 등교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시달리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를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의 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다 지역 내 감염마저 늘어나는 추세여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각급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 신종플루 위험 국가에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입국 후 자택에서 7일 간 머무른 뒤 이상이 없을 때만 등교하도록 지시했다. 초등학교는 내달 1일부터, 중학교는 오는 18일부터, 고등학교는 19일부터 각 학교별로 2학기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도 교육청은 학교에

못 나오는 교사에 대해서는 강사로 대체하고, 학생은 결석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은 등교 시에도 몸에 이상(발열을 동반한 목 아픔, 기침, 콧물 등)이 없다는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받아야 한다. 또 해외를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신종플루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하고, 등교 여부를 지시받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비롯한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해 전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의료기관과 지역 의사들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학부모들은 개학을 앞두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의료기관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우산 챙기세요 (Bring an umbrella)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광주: 구름맑음 24/32°C
목포: 구름맑음 23/30°C
여수: 구름맑음 23/28°C
원도: 구름맑음 23/31°C
구례: 구름맑고 한때비 23/32°C
애남: 구름맑음 23/32°C
장흥: 구름맑음 23/31°C
고흥: 구름맑음 22/30°C
순천: 구름맑음 24/30°C
영광: 구름맑음 23/31°C
진도: 구름맑음 23/32°C
전주: 구름맑음 23/32°C
남원: 구름맑음 23/32°C
목포: 구름맑음 23/29°C
지역별 강수량, 파고, 저위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일출/일몰 시간, 최저/최고 기온 등 상세한 날씨 정보와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녹색성장 교육센터 추진”
김윤수 전남대 총장 취임 1주년
전남대는 올해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녹색성장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김윤수 총장(사진)은 취임 1주년을 앞둔 17일 성과 및 앞으로 계획 등을 발표하고 “취임 1년 만에 745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 녹색성장, 녹색기술 선도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대는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기후협약 등 녹색성장의 핵심 세 분야 연구센터와 연구진 등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녹색성장 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시아 13개 국가 29개 대학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광주 동구, 2개 부문 선정
출산휴가 직원 업무 공백
광주 서구, 이주여성 채용
광주 동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2009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중 2개 부문에 선정돼 국비 9천 225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동구는 17일 “1도시 1특성화”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2개 사업이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선정돼 각각 5천만 원과 4천225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동구는 ‘1도시 1특성화’ 사업에 구비 2천500만 원을 더 투입해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 양성 2개 과정과 한국 전통음식 전문가 양성 1개 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동구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에도 구비 2천500만 원을 더 지원해 재래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평생교육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서구가 출산휴가 직원의 업무를 이주여성에게 맡겨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2일 여성 직원의 출산 휴가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 출신 이주여성 김은자(35)씨를 채용했다. 지난 1999년 한국으로 시집온 김씨는 서구청 복지사업과에서 다문화가정 업무를 맡으며 이주여성들의 상담을 맡고 있다. 김씨는 중국의 한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고,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2년 간 중국어 강사로 활동했으며 다문화가정 생활체험수기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서구는 김씨의 업무 능력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가정 업무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SONY VAIO System 세련된 아름다움!
My Style My VAIO
New VAIO의 특징적인 섀도 컬러를 만나보세요!
VAIO는 당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VAIO의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 옵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VAIO의 성능과 디자인을 강조하며,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엘리시아
특별 프리미엄 비료
아이엘리시아
농업 관련 기업인 아이엘리시아의 비료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료의 효능과 사용법을 설명하며, 다양한 포장 옵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엘리시아의 비료는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수확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